

# 스포츠 동아

2019년 11월 5일 화요일  
sportsdonga.com 10판



메이저리그가 5일(한국시간)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의 사이영상 후보자를 발표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빅 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평균자책점(2.32)을 기록했다. 사진출처 | LA 다저스 트위터

## ‘평균자책점 1위’ 류현진 사이영상 최종후보 유력

오늘 리그별 3인씩 선정...14일 사이영상 발표

2019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어지는 사이영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2)의 한국인 최초 최종 후보 진입은 현재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정규시즌 성적을 토대로 전미야구기자협회(BBWA)의 투표로 선정되는 사이영상은 오는 14일(한국시간)에 발표된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각각 한 명씩이 영광을 안는다.

수상자 발표에 앞서 5일에는 각 리그별 최종 후보 3인이 먼저 공개된다.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사이영상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류현진은 올해 LA 다저스 소속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정규시즌 14승 5패 평균자책점(ERA) 2.32를 기록해 팀의 지구 우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특히 ERA 부문에서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해 개인 기록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시즌 중반까지만해도 사이영상 1순위로 거론됐지만 8월의 아쉬움이 수상 가능성을 다소 떨어뜨렸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로는 현재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디그롬은 올해 11승 8패 ERA 2.43, 204이닝을 던지며 삼진 255개를 잡았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2일 사이영 포인터를 기반으로 리그별 수상자를 예측했다. 내셔널리그에서는 디그롬이 84점으로 1위, 류현진이 75점으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세인트루이스 잭 플래허티(72점), 워싱턴 스티븐 스트라스버그(71점) 순으로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아메리칸리그는 휴스턴 게릿 콜과 저스틴 벌랜더의 집안싸움이 될 전망이다. 두 투수는 MLB닷컴 예측에서 콜이 100점을, 벌랜더가 99점을 받았다.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 왜?

## 키움, 장정석 감독 전격 결별 미스터리

3년 재임 중 7위→4위→KS준우승 뚜렷한 성과  
“경영권 내홍 속 ‘이장석 인맥’ 숨어내기” 분석

충격적인 낙마다. 키움은 4일 재계약이 유력했던 장정석 감독과 전격 결별을 발표했다. 혁신적인 운영으로 팀을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장 감독은 경영권 교체 속에 갑자기 히어로즈 유니폼을 벗었다. 스포츠동아DB

하승 새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인사권 “지금은 변화할 때” 새 감독에 손혁 낙점 구단 “키움 시스템 잘 알고 지도력 탁월” 손 감독 “데이터 야구·즐거워 야구할 것”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시리즈(KS) 준우승을 이끈 장정석 전 감독(46)과 결별했다. 모두의 예상을 깨 결과다. 새로운 선택은 전 SK 와이번스 손혁 투수 코치(46)다.

키움은 4일 “손혁 감독을 선임 감독으로 선임했다”고 공식발표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택이다. 장 전 감독은 올해를 끝으로 계약기간이 끝났지만, 지난 3년간 뚜렷한 성과를 냈다. 2017년에는 7위에 머문 뒤 지난해 4위로 가을야구에 진출했고 올해는 팀을 5년 만에 KS로 이끌었다. 또 선수단을 탄탄하게 만든 공로가 커 재계약이 유력했다.

### ● ‘준우승’ 감독을 왜?

그러나 키움의 최종 선택은 장 감독과 결별, 신인 감독 선임이었다. 장 전 감독은 왜 재계약에 성공하지 못했을까. 시즌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손혁 키움 선임감독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복선처럼 이어졌다. KS 무대에 함께 올랐던 두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은 우승을 확정 지은 후 곧바로 재계약에 성공했다. 그러나 혁신적인 시도로 새 바람을 일으키며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까지 받은 장 전 감독의 재계약 소식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다.

키움은 최근 내부적으로 이장석 전 대표의 ‘육중 경영’ 문제 등 경영주도권을 놓고 내홍이 컸다. 이 전 대표의 구단경영 관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알력싸움’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이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가 물러났고, 하승 선임대표 체제가 시작됐다.

하 대표는 대외적으로 10월 29일 취임했다. 새 감독 선임 발표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미 경영권을 장악한 시점부터 장 전 감독과 결별을 준비했다고 해석된다. 대외적으로 외국인감독을 포함한 4, 5명의 후보군을 직접 인터뷰해 최종 손 감독을 뽑았다고 발표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매우 짧

다. 장 전 감독은 4일 오전에야 재계약 불가 소식을 통보받았다.

경영 주도권을 잡은 하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감독으로 선임한 장 전 감독과 결별하고 새 감독을 영입하는 상징적인 결단을 내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 ● 왜 손혁인가? “변화가 필요한 이유”

키움 핵심 관계자는 “구단으로서 더 큰 ‘변화’가 필요했다. 손 감독은 우리 구단에 코치로 있었던 사람이라 시스템에 대해 잘 안다”며 감독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키움은 변화를 원했고, 그를 실천에 옮길 첫 수장으로 손 감독을 선택한 것이다.

손 감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히어로즈에서 투수코치를 지냈다. 현재 핵심 전력으로 성장한 조상우, 한현희 등 투수들과 각별한 사제의 연을 맺었다. 이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기에 도약을 위한 인물로는 부족함이 없다.

구단 관계자는 “손 감독은 트레이 힐만, 염경엽 감독과 함께 SK에 있으면서 지도자 능력이 한 단계 더 발전했다. 구단은 그런 점을 높이 봤다. 면접에서도 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상세하게 잘 설명했다”고 말했다.

▶ 3면으로 이어집니다

고척 | 장은상 기자 award@donga.com

고메스에 백태클 후 멘붕·오열... ‘대표팀 캡틴’ 손흥민 심리적 충격 어찌나 ▶ 2면

아는 사람 부탁으로 마지못해 가입한 보험들  
**보장내용도 잘 모르고,  
보험료도 부담스러우십니까?**

**비교진단으로 간편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내 인생이 걸린 보험, 모든 보험을 비교해보고 가장 유리한 것으로 하셔야죠?  
선진국 방식의 획기적인 보험 ‘비교진단’ 서비스 - 에프엠에셋.  
대한민국에 등록된 수많은 보험사들의 모든 보험을 비교진단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은 막아주고, 꼭 필요한 보장은 짝꿍 채워줍니다.



www.infodb.co.kr

### 보험전문가 에프엠에셋의 맞춤형 해결법!

- 노후대책을 위해 나에게 딱 맞는 ‘연금보험’은 어떤 것이 있는지?
-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중신보험’은 어떻게 드는 게 좋은지?
-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한 꼭 필요한 ‘간병보험’은 어떤 게 유리한지?
- 보험을 통한 ‘절세 노하우’까지?

### 보험은 FM대로! 에프엠에셋의 비교진단 설계!

- 동일한 보장에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을 찾아주고!
- 중복가입으로 줄줄 낭비되는 보험료는 막아주고!
- 병력이 있어도 가입 가능한 암보험을 찾아주고!
- 나에게 꼭 맞는 노후보장 대책도 세워주는 비교진단 설계!

이미 가입한 보험도, 새로 가입하려는 보험도 보험전문가가 ‘비교진단’해 드립니다.



FM에셋

24시간  
무료상담

080-235-0119